

# 이야기 따라 싸목싸목 걷는 광주 한바퀴

### 빛고를 산들길 6개 구간 81.5km 내년 2월 개장 3년간 도심 외곽 길 스토리텔링 217편 선정

광주 외곽 산과 들, 자연마을 81.5km 구간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빛고를 산들길'이 내년 2월 완전히 연결돼 개장한다.

광주시는 23일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20억원을 투입해 광주 도심 외곽을 81.5km를 연결하는 '빛고를 산들길' 조성사업이 내년 2월 취약지역 안전시설(CC-TV) 설치를 끝으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들길은 1구간 당 10km~16km씩 총 6구간(81.5km)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에 1구간씩 6일 일정으로 짜여 있다.

구간을 살펴보면 1구간은 담양군과 경계지역인 광주 북구 용산교~삼각산~도동고개 9.8km이며, 이어지는 2구간은 잣고개~동구 장원봉~동적골 14.4km, 3구간 남구 진월교차로~서구 금당산~풍암저수지 11.5km, 4구간 만귀정~서창고~광산구 평동역~평동저수지 16.6km, 5구간 북동산길~황룡강~임곡역 12.7km, 6구간 진곡~하남

산단~비아~용산교 16.5km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국비 등 20억원을 투입해 빛고를 산들길 조성사업은 기본용역과 8차례에 걸친 시민설명회, 산과 들에 얽힌 스토리텔링 개발, 이정표, 탐방로 정비, 테마별 숲길 조성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내년 5월에는 동네 한 바퀴 연결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 걷기행사도 개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향토사 자료와 구비문헌, 시립박물관 발간 자료 등을 토대로 코스 길마다 담긴 이야기 506편을 수집했고, 국내 유명

명 사학과 교수 6명의 자문을 받아 서사성, 흥미성 등을 중심으로 217편의 스토리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명확하고 중복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제외됐다.

제주도 올레길 등 전국적으로 길 만들기 열풍을 타고 각지에 수많은 길이 조성돼 있지만, 도심 외곽을 돌며 역사와 이야기를 풀어내는 길은 산들길이 유일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동수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사

■ '빛고를 산들길' 구간



실상 소외됐던 광주 외곽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되새겨 보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산들길로, 그 의미와 뜻을 담다보니 장장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특히 탐방객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간 곳곳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길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역대 연봉자 1만1000명

### 새정치 황주홍 국제청 자료분석 직장인 평균 연봉 2600만원

광주·전남지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600만원이며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은 1만100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23일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광주와 전남의 직장인 각 6000명(전체 39만명의 1.5%)과 5000명(전체 34만명의 1.5%)의 1인당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억원 이상 연봉자 수의 2.6%에 해당한다.

이들 1만1000명의 연간 총급여액은 1조 4873억원으로 1인당 평균은 1억4000만원

이다. 이는 같은 기간 광주·전남 직장인 73만명의 평균 연봉인 2600만원의 5배나 된다.

전국의 1억원 이상 연봉자는 41만6000명이며 서울지역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전국의 47%인 19만6000명이었다.

이 밖에 다른 시·도의 1억원 이상 연봉자 수는 경기(8만2000명), 울산(3만명), 부산(1만6000명), 경남(1만5000명), 경북(1만3000명), 인천(1만2000명), 대전(1만명), 충남(9000명), 대구(7000명), 전북(5000명), 충북(5000명), 강원(4000명), 제주(1000명) 순이었다.

황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기간산업의 마련 및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기업 유치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 내년부터 '여초시대'...여성인구 남성 추월

### 출생성비 낮지만 더 오래 살아 저출산으로 2031년 인구 감소

내년부터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시대'가 열리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혁이 시작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14% 이상되는 고령사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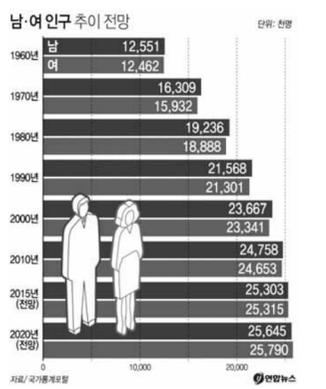
23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정부가 1960년 관령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 될 전망이다.

여성인구는 2031년 262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성인구는 2029년 2591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초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3이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전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된다.

올해 3684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한다. 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까지 늘어난 뒤 2031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중세, 외국인·여성·노인 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영광 출신 김빛내리 교수 생명 탄생의 신비 벗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RNA(리보핵산) 연구단장인 김빛내리(영광 출신)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새 생명이 막 잉태되는 초기 배아 단계에서의 RNA 작용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의 초기 배아세포는 스스로 RNA를 합성할 수 없어 난자(모체)에서 유래한 RNA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RNA는 배아세포의 성장을 위해 점차 소멸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연구진은 모체에서 유래한 마이크로RNA의 발달에 꼬리가 달리는 변형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마이크로RNA의 양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 교수는 "초기 배아단계의 중요한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생명의 신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평도 도발 4주기 '아픔 잊지 말자'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튼튼한 안보,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기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4주기 행사에서 유가족 등 참석자들이 분향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주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 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주유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